

보도시점 2024. 1. 19.(금) 배포 2024. 1. 19.(금)

재외동포청, 제3차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실시

- 평창 등 강원도서 겨울 체험...21개국 264명 참가 -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18~24일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제3차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동계)’를 실시한다.

○ 이번 연수에는 21개국에서 264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국 문화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갖는다.

〈국가별 연수참여 인원〉

구분	국가	인원	구분	국가	인원
중남미 (4개국, 18명)	아르헨티나	6	아시아 (8개국, 159명)	인도네시아	22
	브라질	7		베트남	54
	콜롬비아	1		필리핀	13
	파라과이	4		태국	3
대양주 (3개국, 31명)	호주	30		말레이시아	6
	뉴질랜드	3		중국	58
	브루나이	1		일본	2
CIS (2개국, 41명)	카자흐스탄	12	유럽 (2개국, 4명)	대만	1
	러시아	29		프랑스	2
북미(1개국, 7명)	미국	7		이탈리아	2
아프리카(1개국, 1명)	가나	1			
총 21개국 264명					264

※ 1, 2차 연수는 하계 기간(7월~8월) 시행 완료

□ 모국 연수사업은 차세대 동포(14~18세)를 대상으로 모국의 사회, 문화·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인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동계 연수는 모국의 역사문화 체험과 함께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이번 동계 연수에서는 △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개회식을 열고,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며, △ 도전 골든벨 한국어 게임,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관람 및 응원 활동 등을 한다.

□ 19일 열린 개회식에서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및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청소년들도 재외동포 사회에서 빛나는 리더로 성장하고, 자랑스러운 모국과 함께 상생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개회사를 했다.

붙임 첨부 사진 1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인권과	책임자	과 장	김채영	032-585-3213
		담당자	사무관	김주동	032-585-3214